

시론



김명진

더연정치립 대표

국회와 광주시가 예산을 둘러싼 초유의 사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예산은 12월2일이 법정시한이었다. 헌법 54조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국회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국회의장이 지정한 15일, 19일을 넘기면서 기한 경신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 여야 합의의 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 합의 불발 시 정부 원안이나 야당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합의 중용을 위한 압박이다. 정점들이 하나씩 좁혀져 법안제 인화와 위법 시행령 예산만 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교적 합리적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안제 1% 인화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예산을 현재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예비비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주호영 원내 대표도 긍정적이었지만 용산 대통령실

예산갈등과 소통

은 새 정부의 자기부정이라고 반대했다. 윤심에 막혀 국회는 그동안 헛 바퀴만 돈 것이다. 국민의 힘이 용산에 종속된 아바타로,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심의힘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광주시의회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증액 없이 감액만 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 밖에서는 잘 알 수 없는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양측의 감정적 비난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기정 시장과 의회의 공통적인 소신도 엿보인다. 예산처리과정에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걷겠다고 같이 밝히고 있다. 시의장은 꼭지예산 배제를 성과로 강조했고, 강 시장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틀을 깨고 민원성 예산은 앞으로 반영을 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갈등을 집행부와 의회 간 정면충돌로 보기도 하지만 상대의 시장 소신과 업무 방식에 점차 익숙해 가는 과정이다. 7월1일 임기 시작 이후 추경에 이어 예산대립 시즌2를 거치면서 집행부와 의회도 서로 비난은 하지만 스타일에 적응해 가고 있다. 시정에 대한 각자의 소신과 철학이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선후경중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속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의회는 23명 의원 중 16명이 조선이

다. 예결위는 9명 중 8명이 조선이다. 이번 조선의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남달라 원칙과 정도도 시정에 임하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소신행정과 소신 의정이 부딪힌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은 정부와 집행부가 하고 심의는 국회와 의회가 한다. 증액은 집행부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때문에 서로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고 설득을 통해 조정과 타협을 해야 해법이 만들어진다. 상대를 ‘분풀이성 심의권 남용’으로 ‘독선과 아집’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면 대립만 격화될 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 협치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광주시장과 예결위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모순이다. 앞으로 3년 6개월 이상을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를 만든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앞으로 안 볼 사람들처럼 언제까지 평행선만 달릴 것인가. 집행부와 의회의 긴장 관계는 필요하다. 오히려 임기 초기에는 시장과 의원들이 모두 같은 담으로 채워져서 견제기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 중간에 임기가 시작돼

예산반영이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향후 양측 관계가 비관적이기만 할까, 이번 갈등의 순기능도 있다. 의원들이든 집행부든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산은 서로의 감시와 견제 때문에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민원성 예산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되고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라는 지 ‘주고 받기식’ 반영이 어렵게 되었다. 시장이든 의원이든 선거 때 공약을 지켜야 하고 도움 받은 단체나 인사들의 청탁성 민원에 시달리기도 한다. 오히려 이번 갈등으로 이해관계성 민원인들을 물리치는 좋은 사유가 만들어졌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지예산 없는 광주시를 만들 수 있다면 과거의 틀을 깨는 진화된 도시로서 광주의 진면목을 전국에 보여 줄 수 있다. 이번 파행으로 자질이 생긴 필수 사업들은 내년 추경 편성과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보와 결단으로 순조롭게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연말 연초에 무책임 의회, 불통 집행부로 이번 갈등을 보는 민심의 소리를 잘 들어보고 구동존이의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여야든, 시장이든 의회든 손을 먼저 내민 쪽이 힘이 더 커 보인다.

社說

우주발사체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전남

전라남도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됐다.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정부는 제22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열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과 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의 구체적인 성과 목표도 제시됐다. 전남은 발사체, 경남은 위성, 대전은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로 확정됐다.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구축된 고흥은 민간발사장 확충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누리호를 비롯해 차세대 발사체, 소형 위성용 발사체 등 여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류를 다양화한다. 2031년까지 전남도는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에 1조6천8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172만9천㎡(52만평) 규모로 들어선다. 민간발사장과 연소시험장, 조립동 등도

조성한다. 고체 전용 발사장 및 발사체 조립 시설, 우주연구센터 등 고체 발사체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고흥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까지 4회에 걸쳐 누리호를 반복 발사하며, 이후 성능이 대폭 확장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2030년부터 3회 발사된다. 경남과 연계해 남해안 남중권에 초광역 국가 우주산업 벨트도 추진한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는 10개 이상 엔지니어링 유치로 2조6천660억원의 생산유발, 1조1천380억원의 부가가치, 2만78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누리호 성공 발사로 전남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우주산업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특화지구로 날개를 달았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끄는 전조기지로 발돋움할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전남도가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앞으로 안정적 국비 확보를 통해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의 힘찬 비상을 기대한다.

제창업 활성화 기술거래소 광주에 설립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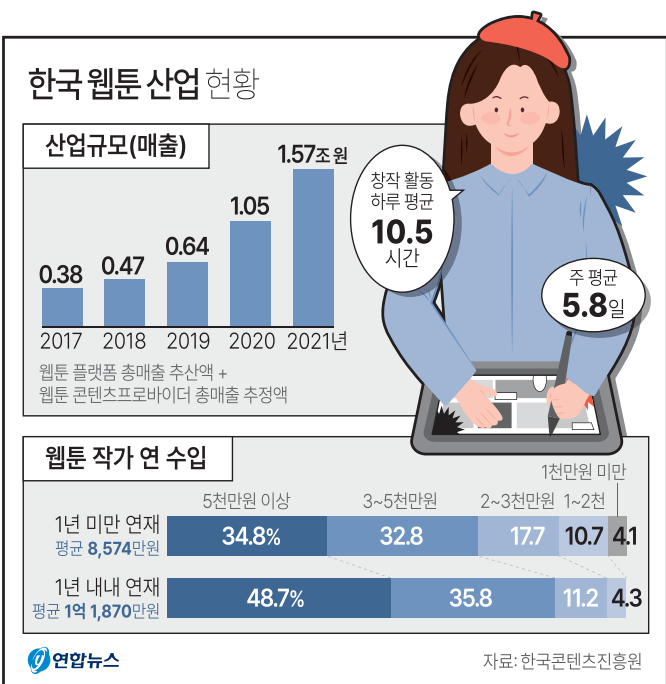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최한 ‘제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술거래소를 광주에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시대는 기업과 함께 성장되는 기술과 지적 자산, 기술거래 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기술거래소를 광주에 설립하고,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광주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라는 인프라 안에서 샌드박스를 통해 유예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거래소는 내부 기술 개발의 한계를 외부 기술 도입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거래를, 벤처기업협회는 인수·합병의 거래를 목적으로 의기투합해 지난 2000년 설립했지만 2009년 벤처 버블 붕괴와 출자기관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4개 기관과 통합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속에 기술 자산화는 물론 유동화 요구가 높고, 기술 공동 소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며 거래소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 광주’, ‘창업가 부활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강수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창업은 모험적이지만, 역동적이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버팀목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력과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기업 환경과 창업 기반이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술거래소는 창업과 재창업의 귀중한 자산이다. 청년과 기술기업을 광주로 유인하고 기술을 거래하도록 해 신산업, 신금융의 패러다임을 주도해야 한다. 광주가 창업 준비부터 실행, 성장, 회수 및 재도전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창업·벤처시장이 흑한기다. 금융당국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견인할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공유하도록 광주에 기술거래소를 뒀다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좋은 방편인 때문이다.

그래픽 뉴스

인기 웹툰작가 연 수입 1억2천만원...절반은 5천만원 미만

한국 웹툰 산업 매출액이 1년 사이에 50% 가까이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 웹툰 산업의 작년 총매출액은 전년대보다 약 5천122억원(48.6%) 늘어난 1조5천66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웹툰 플랫폼의 총매출액 추산액(약 8천241억원)과 웹툰 콘텐츠프로바이더(CP)의 총매출 추정액(약 7천419억원)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 웹툰 사업체의 작년 매출액 평균은 186억원이었고, 이들의 웹툰 관련 평균 매출액은 약 98억원이었다. 웹툰 작가 수입은 연재가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콘진원이 함께 공개한 ‘2022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내 작품을 연재한 경험이 있는 작가의 연간 총수입 평균은 1억1천870만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하면 약 3천749만원(4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연 총수입이 5천만원 이상인 이들은 48.7%에 그쳤다. 15.5% 정도는 3천만원 미만으로 조사되는 등 작가들 사이에 편차가 상당했다. 웹툰 작가의 하루 평균 창작 활동 시간은 10.5시간이고 주 평균 창작 활동 일수는 5.8일이었다. /연합뉴스



문화난장



이현

아동문학가

“나는 왜?” 어쩌다, 간혹학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참 많이 힘들었다. 한 번도 꿈 꿔보지 않았던 간혹사의 길은 낯설음과 어둠의 길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뒤돌아보며 오던 길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문득, ‘나는 왜 간혹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의문이 들었고, 그 답을 찾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 “뭐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으로 작은 사슴 섬, ‘소록도’를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간혹사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찾고 싶어 선택한 길이었지만, 쉽지 않았다. 광주에서 고흥까지 버스에 몸을

을 싣고 구불구불 길을 지나, 녹동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소록도는 햇살을 머금은 바람 같았다. 가족들은 물론, 지인들의 반대가 심했던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선택한 길이었지만, 자꾸만 흔들렸다. 안개 낀 바닷가를 걸으며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을 쏟아냈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세상을 보는 눈과 깨달음을 위한 진리의 길이였다. “이게 뭐지?” 요리라 할 것도 없는 음식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묵은 김치와 한 포기 씹삭 썰어 냄비에 담고, 이것 저것 넣다 보면 행방이 묘호하다. 양파를 기본으로 몸에 좋다는 버섯에 새우도 한두 마리, 눈에 띄는 것마다 하나 둘 넣다 보면 저게도 아니고 국도 아닌 국적 불명 음식이 되고 만다. 차마 버릴 수 없어, 한 입 꿀꺽이지만 후회막급이다. “만약에 그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도 마찬가지다.

가지다. 만약에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지만 고개를 흔들게 된다. 이미 걸어진 길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 선택에 정답은 없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선택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날지, 5분만 더 누웠다가 일어날지. 립스틱을 바를지 안 바를지, 머플러를 할지 안 할지,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할지 안 할지... 조금만 방심했다간, 판 길로 들어서기 일쑤다. 순간의 감정, 의미와 가치, 배려 등 기본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는 만큼 고민하며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오랜 망설임만이 답은 아니다. 개인의 주제와 존엄을 주장했던 철학자 양자의 ‘다기망양’(多岐亡羊)처럼,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음 마음과 전혀 다른 선택, 전혀 다른 길이 될 수도 있음이다.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양 한 마리를 찾

기 위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찾아 나섰지만, 너무 많은 갈림길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너무 많은 생각과 망설임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2023년, 계묘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걸까.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리며 걸어가야 하는 걸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선택할 수 없지만, 가야 할 길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에, 결과 또한 우리의 몫이다. 한 걸음 걷다보면 꽃길도 있고, 또 한 걸음 걷다보면 자갈길도 있고 진흙탕 길도 있을 것이다. 좁은 길과 넓은 길, 골은길과 굽은 길도 있을 것이다. 땀 좀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맘껏 욕심내어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움푹달라진,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이 세상 모든 갈림길을 하나하나 모조리 선택해 나아갈 수는 없기에, 내 안의 나를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독자 투고

* 독자투고를 기입합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겨울철 화재예방 나부터 실천하자

최근 잇따라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회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자칫 대형 화재 및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화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시 우리의 유일한 대피로이자 생명로인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의 방치·적치가 빈번하며 비상구 폐쇄가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이뤄져 간접 살인 행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소방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행위나 물건 적치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해당 건물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비상구 안전관리 동참이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은 특히 전기히터·스토브로 인한 화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으므로 동절기 각종 전기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

구된다.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화재는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한다. 우선 화재예방 안전 점검부터 실시하자 예를 들어 기름이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은 밀봉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화재의 경우 소방차량 출동이 지연돼 5분 이상 경과한다면 피해는 급격히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2차 연소 확대로 인해 인접 건물까지 불이 번져 해당 지역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소방출동로=생명도로’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스스로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 <조경민·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연말정산을 가장한 피싱 문자 주의보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관련 안내나 서비스라고 하면서 국제청을 가장한 문자를 보내는 보이스 피어싱이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하였다. “소득 공제 요건을 조회할 수 있다” 또는 “이만큼 환급받게 될 것인데 확인해봐라” 하면서 국제청 사이트 홈택스를 가장한 링크를 보내오는 수법으로 만약에 이 링크를 누르면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원격으로 피싱범이 내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다. 국제청은 절대로 개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도 갑자

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지 않는다. 국제청도 그렇고 전화 금융 사기 계의 고 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검찰 사정을 비롯한 어떤 정부 기관도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니 새겨두면 좋겠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이용하면 좋지만, 내가 직접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치고 찾아가야 하며 연말정산 관련해서 의심 문자가 오는 것이라 그러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피해를 보지 않은 최고의 방법이자 예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창희·곡성경찰서 경무계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